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 정진영 기획부장

학교조경 등 녹색교육 실천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은 21세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교육적 접근으로서 생태론적인 교육 즉 녹색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95년 1월 5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결성했다. 현재 전국 21개 지역에서 3백~4백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료회원을 포함하면 1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 인터뷰 : 송해영(본지 객원기자) ■ 일시 : 9월 7일 오후 6시 ■ 장소 :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회의실

■ 안녕하세요. 저희 「과학과 기술」을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의 설립 취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은 환경문제와 환경교육에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국 각 지역 교사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21세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교육적 접근으로써 생태론적인 교육, 즉 녹색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지요. 전국에 지역별로 2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 모임의 중심적인 활동은 바로 이런 각 지역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1년부터 하계,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8차례의 전국적인 연수(전교조 참실연수 환경분과)를 개최하면서 네트워크화 되었고, 지역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95년 1월 15일 부산에서 13개 지역의 대표와 5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전국모임 출범 이후 방학마다(13차례) 열린 전국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모임들이 속속 만들어져 현재는 21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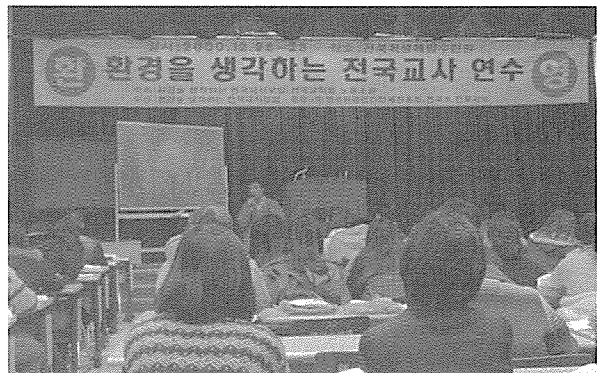
■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의 주요 활동분야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95년 출범 ... 21개 지역에서 4백여명 활동

저희 모임에서는 우선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에서 환경반을 운영하는 등 회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능한 만큼 실천하고 있으며, 각 지역 모임에

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반의 경우 친환경적인 학급 운영, 알뜰시장,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의 날 행사 등을 통한 환경교육, 나무·풀 이름표 붙여주기, 텃밭 가꾸기, 식물 관찰, 학교 생물도감 만들기 등 학교 조경공간을 이용한 환경교육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사, 기행, 견학, 일손돕기, 캠프 등 교사와 학생 대상 생태학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모임에서 하고 있으며 최소한 계절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대상도 학교 환경반 학생, 담임반 학생, 학교 교직원과 자녀, 전교조 조합원과 가족, 환경단체 회원 등 다양합니다. 여름 캠프도 인천, 수원 등 많은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은 생태적 마인드를 확산하고 회원을 늘리는 수단으로서 지역 모임 활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제는 야생화, 민물고기, 숲체험, 겨울철새, 여름철새, 도요새, 갯벌, 하천탐사, 자연늪, 유기농업 일손돕기, 교정의 꽃과 나무 등 매우 다양하며, 지역의 생태계



환경친화적인 삶이란?

보존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최근의 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현재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북, 수원, 안산, 마산, 여수, 해남, 홍성, 속초, 장흥, 총 21개 지역에서 3백~4백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료회원을 포함하면 1천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들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실천들이나 모임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것들을 꼽아본다면 '생태농업과 마을공동체' 전국 연수 개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참여, 습지보존 운동, 일본의 습지보존과 교육현장 방문, 청소년을 위한 여름 환경생태체험 캠프 개최, 생태적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사 대상 생태기행, 서울 초등모임의 릴레이 주말 들살이, 환경 교과서 분석과 대안 환경교과서 준비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그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축적된 프로그램이나 자료도 많으리라 보여지는데, 소개할 만한 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홈페이지 운영 ... 환경반 자료집 출간

그간 많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왔으며, 자료집도 발간했습니다. 우선 초, 중, 고 환경반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왔고, 생명의 숨결 되살리는 녹색교실, 초등 환경반 운영을 위한 자료집, 갯벌은 내 친구, 숲은 내 친구, 통합교과적 접근에 의한 중등 환경반 운영 자료집, 환경반 운영 자료집, 나무와 숲에 관한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자료집을 만들었으며, 각종 생태학습 프로그램 등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자료의 공유를 위해서 홈페이지(<http://konect.ktu.or.kr/>)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각 지역모임의 계획을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 서울모임과 전국모임의 계획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중등모임에서는 전교조 지회들과 생태기행, 회원들의 환경반 운영 지원, 생태사상 세미나, 환경교과서 분석 마무리와 대안 교과서 집필준비, 전교조 참교육실천 보고대회 준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모임에서는 전교조 참교



갯벌 생태 체험(2000. 12. 27)

육실천 보고대회, 환경생태교육분과 제반사항 준비, 겨울 전국연수 준비,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참여, 녹색교육 발간, 자료회원 배가,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의 환경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지적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단순한 인간중심적인 환경개선이 아니라 자연 만물과 인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엔 아직 국민들의 생태적인 마인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그리고 개개인의 삶 속에 순환과 공생의 생태적인 마인드가 녹아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받은 시민들에 의한 다양한 풀뿌리 환경단체들의 출현이 필요합니다. 그들에 의해 정부, 지자체나 기업의 활동이 감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경쟁의 논리에 찌들어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나 기업가들의 의식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지요. 환경문제를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역시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 교과과정상 환경교육에 만연하고 있는 환경개량주의(과학기술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분히 땀질식 처방이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뿐이지요.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지닌 사람, 개발과 경쟁보다는 상생과 평화의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교육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①7